

“광주와 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돼 달라”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일보 지령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으로 범접하기 힘든 금자탑입니다. 1988년 창사 이래 ‘호남의 꿈과 미래가 되자’,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바꾸자’, ‘호남 최고의 정론지가 되자’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온 지난 축적의 시간에 발 딛고 올해 지령 1만 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1만 번 신문을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현장에서 발로 뛰고 편집국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전남일보가족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일보는 이제 지령 2만 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길은 광주의 미래와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광주는 ‘2030년 대전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3종 세트, 미래차와 AI, 도시철도 2호선, 달빛철도, 숲세권 2배 등 2030년의 광주는 누구도 경험한 적 없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입니다.

격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전남일보가 시도할 대전환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광주와 광주시민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령 1만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미래 밝게 비추는 등불 돼 주길”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난 36년 동안 바른 언론의 한길을 걸은 전남일보의 지령 1만호 발행을 온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남일보는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 아래, 시대와 공명하는 참된 언론의 소리로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해 왔습니다.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일주이슈’와 지역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호남인’,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기획시리즈’ 등 시사성과 참신함을 갖춘 기획·특집을 선보여 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국기자협회가 실시한 ‘이달의 기자상’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 최다 수상 일간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다. 이렇듯 더 나은 사회를 꿈꾸며 전남일보가 내디딘 숭한 걸음들이 모여 ‘지령 1만호’라는 큰 결실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일보가 지역을 위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며 호남 대표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도는 도민과 함께 일구어낸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세계 속에 빛나는 ‘글로벌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일보가 전남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지역의 희망찬 소식을 놓치지 않고 널리 전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공정·진실 보도로 언론 가치 지켜주길”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전남일보 1만호 발간을 145만 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세월을 시민과 함께 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88년 민주화운동의 거센 바람과 함께 태어난 전남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광주·전남 사·도민과 동고동락하며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디지털 전환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대표 정론지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진실을 가리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로 언론의 사명과 가치를 지



켜주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언론이 위기라고 하지만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우리 입장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일도 지역 언론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언론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신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비판 없는 찬양보다 우정 있는 비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언론인들의 우정 있는 비판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와 지역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재생 위한 싱크탱크 역할 기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전남일보의 지령 1만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1988년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와 함께 시작된 전남일보는 지난 36년간 지방언론의 본령을 수호하며 정론의 끈을 걸어 왔습니다. 일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이재욱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의 신뢰와 사랑 속에 1만호 발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한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 온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제지표는 고물가·고환율·저성장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사회 양극화의 위기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부터 지방



소멸 극복, 민생경제 회복까지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전남도의 산적인 현안을 해결해 나갈 대안 마련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분권의 안착을 선도하는 지방언론의 사명과 역할 또한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재생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전남일보가 더 큰 활약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지난 1만호의 역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끄는 상생의 주축이 돼 도약하는 전남을 위한 해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도의회 또한 체감도 높은 의정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건강한 여론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 보도·분석으로 지역 사회 발전 앞장서달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존경하는 전남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일보 가족 여러분, 전남일보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욱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남일보의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남일보는 1988년 창사 이래 ‘민주주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 아래 언론의 정도를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해오며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는 호남 최고의 정론지로 성장했습니다.

또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홈페이지



이지, 모바일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며, 정론언론으로 도약한 전남일보의 비전과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전남일보가 공정한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또 시민과 교육계의 가교이자, 소통 창구로서 전남일보의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일보 1만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또 전남일보의 발전과 성장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교육 대전환’ 위한 지혜 빌려달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전남일보 지령 1만호 발행을 전남교육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전남일보는 35년을 한결같이 ‘민주주의의 구현, 진실 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라는 사시를 실천하며, 언론창달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남일보가 지령 1만호라는 시간을 써오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담론으로만 여겨졌던 미래사회가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남교육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남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파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다. ‘교육의 대전환’으로 위기를 넘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전남교육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에서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교육’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열어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남일보도 적극 성원해주시고, 지혜를 빌려 주시기 바랍니다. 2만호, 3만호 더 큰 영광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1만호 발행 꾸준함... 1만 타석 실때까지 꾸준함 본받을 것”

KIA타이거즈 김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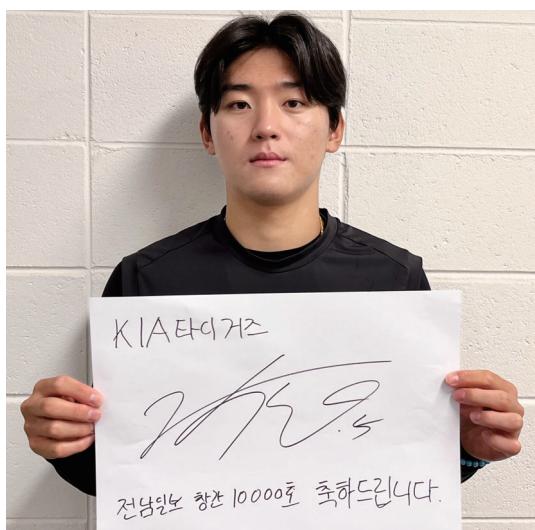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입니다. 최근 지면을 넘어 뉴미디어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프로야구 소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전남일보의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남일보는 언제나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저나 KIA타이거즈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 무대에 입성하기 전부터 KIA타이거즈는 지역민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였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일보가 1만호 발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임직원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꾸준함을 본받아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BO 리그 통산 1만 타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KIA타이거즈 팬과 지역민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전남일보 독자분들께서도 올 시즌 저에게 기대와 격정을 보내주시고 활약을 지켜보고 계신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꼭 올 시즌 열두 번째 우승이라는 기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남일보의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호남 최고의 정론지가 되자’는 창간 비전에 맞춰 더욱 발전하는 매체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 1만번 하면 이뤄진다... 우승·환희 선사하겠다”

광주FC 엄지성

안녕하세요. 광주FC의 ‘스피드 스타’ 엄지성입니다. 1989년 1월 ‘호남의 꿈과 미래가 되자, 사람을 키우고 지역을 바꾸자’는 비전을 갖고 창간한 전남일보의 1만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남일보가 1만호까지 오는데 ‘정도(正道)’를 위해 성실히 땀 흘린 임직원분들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꾸준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의 순간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일보는 지면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최근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 양상에 힘쓰며 더욱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려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매체입니다.

저는 전남일보가 프로축구를 비롯한 지역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인디언 격언인 ‘같은 말을 1만번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격언은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이 신념이 되고, 또 그 신념이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전남일보와 같은 꾸준함으로 광주FC 팬들과 광주·전남 지역민들께 올 시즌 팀의 목표인 우승의 환희를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근 달성한 K리그 100경기 출장을 넘어 200경기, 300경기 그 이상까지도 꾸준히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